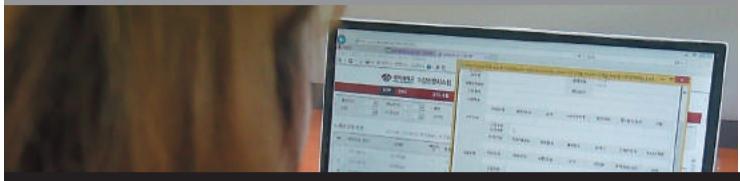


3» 강의계획서 게시율 조사



6» 신임 대외협력부총장 인터뷰



8»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 르포



비가 와도 씩씩한
새내기의 발걸음

2018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8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김지원(한국어학 2018) 씨는 “날씨가 좋진 않지만 예쁜 학교에서 입학식을 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조인원 총장은 “사유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축사를 전했다. (사진=이후승 기자)

사학연금 일부 학교가 부담 할 듯 추가 자금 없을 시 교육부 승인 있어야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우리학교가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2018학년도 법정부담전입금이 21.3억 원 줄면서 사학연금 일부 까지 대학본부가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2018학년도 법정부담전입금은 89.3억 원으로, 2017년 추경예산 보다 21.3억 원 감소했다. 재정예산처는 1월에 열린 제7차 대학평의원 회에서 “사학연금 사용자부담금 등이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법정부담전입금 감소의 이유를 밝혔지만, 법인의 재정악화가 실질적인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부담전입금은 계속 문제가 됐다. 2012년까지는 법인이 100%를 부담해왔지만, 2013년 99.9%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4년 65.2%, 2015년 59.4%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2016년, 2017년 역시 증가 추세

없이 60%선을 유지했다. 2014년 당시 법인은 “재정문제로 직원 건강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2014년 이전까지는 법인이 사학연금, 건강보험료를 모두 부담했지만,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사학연금만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의 일부분 또한 학교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재정예산처 이승민 계장은 “만약 추가경정예산 때 법인으로부터 사학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2018학년도 회계 정산 때 교육부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법인이 대학으로 부담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이 사학연금까지 부담하기 위해선 학교경

영기관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올해 자금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지출해야 할 교원법정부담금은 123.4억, 직원법정부담금은 51.8억이다. 법정부담전입금 89.3억 원을 제외한 85.9억 원은 결국 우리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재정예산처는 “일단은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할 예정이지만 부담이 되기는 한다”며 “올해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법정부담전입금을 확충해달라고 법인에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4년 이후 법인은 경상비전입금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긴 하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다. 작년 경상비전입금은 173억 원이었지만, 경희의료원에서 부담해야 하는 임상교수 월급 161억 원을 제외한 순수 경상비전입금은 12억 원에 그쳤다. 이후 강동경희대병원

의 자금수지가 개선돼 약 40억 원을 우리학교로 추가지출 했지만, 올해도 이 같은 ‘깜짝 자금’이 생기지 않을 경우 경상비전입금의 유입은 어려워 보인다.

학교법인 경희학원 측은 “수년째 수십억 씩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익 확충을 위해 수의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지만, 몇 년째 반복된 대답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 “임대업, 장례식장업 등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자한 법인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금 사정 상 사학연금을 다 부담하지 못하게 됐는데, 자금 사정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때가 돼서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학연금을 계속 대학이 책임지게 할지에 대한 확답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THE 아시아 종합대학 40위 지난해 보다 4단계 하락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우리학교는 지난 6일 발표된 ‘THE 아시아 종합대학 순위’에서 지난해 36위에서 4단계 떨어진 40위를 기록했다. 사립대학 순위로는 5등이다. 지난해 38위로 우리학교 보다 2단계 떨어졌던 한양대는 올해도 자리를 지키며 우리학교보다 2단계 앞섰다.

▲교육여건(25%) ▲연구(30%)
▲논문피인용도(30%) ▲국제평판(7.5%) ▲산학협력수입(7.5%) 5개 지표에서 종합 45.8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종합점수 45.7점보다 0.1점 높은 수치지만 눈에 띠는 상승폭이 없었고, 타 대학의 지표 점수가 상승함에 따라 순위가 하락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표별 상위 10위에 들었다. 국제화 부분은 54.3점으로 4위를 기록하며 지난해 51.5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3,6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 규모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교류가 심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학협력 수의 부문에서 지난해 보다 2.9점 상승한 82.2점을 기록하며 7위에 올랐다.

미래정책원은 이번 순위평가를 두고 “연구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논문 피인용도가 떨어진 것 같다”며 “작년대비 나머지 지표에서는 점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교육여건 지표에 대해서는 “교육여건 지표는 ▲학사학위수여자 대 박사학위 수여자 비율 ▲교원당 박사학위 수여자 수 ▲교원평판도 ▲교원당 대학수입 ▲교원당 학생수로 구성되어 있다”며 “학사학위수여자 대 박사학위 수여자 비율이 11%로 주요대학 15~3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교원당 박사학위 수여자 비율이 27.1%로 주요대학 35~50%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THE 대학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대학명	아시아 순위	종합 점수	논문 인용도	산학 협력	국제 인지도	연구 실적	교육 환경
1 서울대	9	66.3	60.6	79.8	34.1	74	69.5
2 KAIST	10	65.4	70.4	100	35.6	63.7	60
3 포스텍	12	63.7	76.4	99.8	34.3	57.5	54
4 성균관대	13	63.4	69.5	93.7	44.7	60.4	56.2
5 연세대	20	56.1	46.1	99.2	54.6	58	53.2
6 UNIST	22	55.4	95.9	66	47.9	37.8	27
7 고려대	24	54.5	49	97.7	49	55.3	48.8
8 한양대	38	47	41.9	84.7	56.4	45.5	40.7
9 GIST	39	46.2	40.9	66.8	34.4	49.8	45.6
10 경희대	40	45.8	46	82.2	54.3	44.6	33.5

‘책임부총장은 누구?’ … 미래정책원 “폐지는 아니다”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지난해 구성원과 마찰을 빚었던 책임부총장제가 한글태 대외협력부총장이 보직해임되면서 책임부총장직은 공석이 됐다. 그러나 책임부총장제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미래정책원의 설명이다. 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미래정책원은 “기존에 책임부총장이 담당하던 결재 선과 역할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겠지만, 제도 폐지라고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책임부총장제도는 작년 10월 ▲ 책임부총장 중심의 실행체계 전면

화 ▲부총장단과 미래정책원, 총장 실 간 유기적 정보 공유 및 논의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시 교수의회는 이 제도에 대해 “우리 대학이 처한 고질적인 인사적 폐를 종망라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지난 2월 9일자로 책임부총장을 맡았던 한글태 대외협력부총장이 보직해임되면서 책임부총장직이 공석이 됐다. 일각에서는 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책임부총장제가 신설될 당시인 지난해 10월 미래정책원 권역별 부원장은 “책임부총장

의 대외적인 직위는 대외협력부총장”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권 부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새로운 대외협력부총장은 책임부총장의 책임과 권한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신임 대외협력부총장의 역할에 책임부총장의 역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4명의 부총장단 중 책임부총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총장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앞으로 책임부총장제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미래정책원은 “거버넌스와 제도는 환경 변화와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고려하여 수

정·발전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검토하여

부총장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부총장제도에 대해서 수정 가능성은 시사할 뿐 만 아니라, 부총장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정책원은 지난 10월 “책임부총장의 대외적인 직위는 대외협력부총장”이라고 밝혔던 것에 대해 “책임부총장이 대외적 또는 공식적 직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부총장단 중에서 한 명의 부총장에게 부여하는 선임 부총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알림

사령

면

〈편집장〉 이수형(경제학 2015)

명

〈편집장〉 박지영(언론정보학 2016)

대학주보 67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대상 : 1~3학년 중 3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자

모집일정 :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접수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참조

문의 : 010-4086-3050

시선

사설

법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

새내기의 힘찬 새 출발로 캠퍼스가 들썩인다. 일부 단과대학의 신입생은 새 건물의 첫 주인이 되는 호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시기에 찬 물을 끼얹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대학의 운영주체는 학교법인 경희학원이다. 대학은 등록금수입과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스스로 벌어들인 수익과 법인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등으로 운영된다.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등록금 수입이지만, 법률은 대학의 운영주체이자 교직원의 고용주체인 법인에게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하고 있다. 이를 범이 정한 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이라 하며 교직원 사학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주를 이룬다.

2012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법인은 법정부담전입금의 100%를 부담해왔다. 이것은 2014년 65.2%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재정문제가 원인이었다. 지난해 까지도 법정부담전입금은 60% 수준에 머물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20억 원 가량이 더 줄어들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법인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법인이 최소한의 책임인 법정부담전입금마저 채우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는 오롯이 대학이 충당할 수밖에 없다. 2014년에는 35억 원 가량이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법 조항에 따라 학생이 낸 등록금으로 교직원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올해는 비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학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변함이 없다.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채우지 못한지도 햇수로 5년을 넘어서었다. 그간 우리 신문이 법인에 술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상황의 개선을 탄진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다. '수의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위험한 투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도 둘 수 없다', '법인도 꾸준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등이다.

속 시원히 공개라도 한다면 또 모를까, 법인이 어떤 수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몇 년째 이어지는 적자의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2015년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가 위탁운영 업체를 상대로 법인 법정공방처럼 문제가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구성원은 수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봄도 없다.

대학을 둘러싼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가깝게는 당장 입학금 감축이 시작됐다. 몇 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학령인구가 눈에 띠게 감소하고 있다. 당장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 수십 억 원을 못 받았다고 대학이 한 순간에 파산하는 일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다. 문제는 신뢰다. 피고용자의 연금과 보험료를 책임지지 못하는 고용주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법정부담전입금의 빈자리를 학생의 등록금으로 메우게 하는 학교법인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개교 70주년을 앞두고 모든 구성원이 신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인도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평



이 주의 주제 - 화재 안전

모두의 노력, 모두의 안전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인생은 한방.' 누군가 무너지기 전 벽에 써놓았던 이 글귀가 부서졌을 때 우린 그저 '웃풀'뿐이었다. 지난해 가을 한방재료공학과 학생회실 벽이 붕괴됐다. 평소보다 조금 많은 가을비를 이겨내지 못했다. 당시 사고현장에 사람이 없었던 것은 우연이 낳은 다행이었다. 마침 그날은 축제 기간으로 모두 나가 있었다. 화재사고도 있었다.

속 시원히 공개라도 한다면 또 모를까, 법인이 어떤 수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몇 년째 이어지는 적자의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쉽지 않다. 2015년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가 위탁운영 업체를 상대로 법인 법정공방처럼 문제가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구성원은 수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봄도 없다.

올겨울 잇따른 화재 속에서 인간은 단 한줌의 재로 사라질 뿐이었다. 제천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는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갔다. 이 두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원인은 열린 방화문 등 기초소방시설 부실관리였다. 비단 제천과 밀양뿐만이 아니었다. 이번 화재참사 이후 이뤄진 다중이용업소 6만여 곳 안전점검에서 도 어김없이 소방시설 부실관리가 그 민낯을 드러냈다.

이에 우리 신문도 소방법을 기준으로 화재안전 자체조사에 나섰다. 결과는 놀라웠다. ▲방화문이 닫혀 있었는지 ▲노후된 소화기는 없는지 ▲원강기·대피로·소화전 앞에 적치물이 없었는지와 관련해 모두 위반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방화문은 열린 채 방치 돼 있었고, 내용연수를 초과한 소화기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화재 시 초기 진압과 피난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소화기·대피로·원강기 앞에는 적치물로 다가갈 수도 없었다. 이들 모두는 소방법 위반행위이다. 증언도 이어졌다. 행정실 과장 A씨는 "평화의 전당에서 화재경보기 고장 민원이 들어와 직접 가보니 잣은 오작동으로 경보기 다수를 꺼놓은 상태였다"며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곳에서 조차 화재안전이 담보돼 있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학교에는 각종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 우리 자신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전은 결코 쉽게 보장되지 않는다. 안전불감증을 벗어 나기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하나 둘 씩 모일 때 비로소 시작된다. 진부한 주장이지만 기초가 지켜지지 않으니 다시금 강조해야 한다. 이번에 목격된 실태 다수는 불편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우리가 놓친 우리의 안전이었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조차 불감한 상황이었다.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소화전 앞에는 초기진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작은 관심과 행동이 있으면 된다. 작은 노력이 모일 때 결에서 항상 기회를 엿보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 작은 노력마저도 포기한다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길을 잊을 뿐이다.

의사를 밝혔다.

한편 학내 노동권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미미했다. ([단독] 청소노동자 복직 알고보니 '눈 가리고 아웅' / 경향신문, 2018.02.07) 흥의대 청소노동자의 복직이 사실상 '연론 플레이'임이 드러났다. 지난 1월 1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흥의대분회는 "흥의대 측이 지난해 12월 용역비용 감축을 위해 해고한 청소노동자 4명을 원직 복직시킬 예정"이라 전했다. 그러나 노조 소속 노동자 4명의 복직을 위한 자리 마련을 위해 비노조원 청소노동자 2명을 대신 해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1월 26일 열린 학위수여식 행사장 입구에서 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학위수여행사장서 문제 해결 호소/한국대학신문, 2018.02.26) 지난해 12월 31일 연세대 측은 31명에 달하는 청소·경비 노동자의 정년퇴직을 발표하며 총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뜻에 동참하는 연세대 재학생들이 학위수여식에 참가한 졸업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나눠주며 시위를 지속했다.

조연이라는 방패 뒤에

숨는 주인공

세시봉

박지영 (편집장)



'하나된 열정'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했던 평창 올림픽에서 이슈는 단연 '영미'였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영미뿐 만은 아니었다. 은메달을 따고도 웃을 수 없었던 김보름 선수가 있다. 2월 19일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다.

진짜 논란은 그 후에 일어났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보름 선수는 뒤처진 노선영 선수를 '저격하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과 함께 인터뷰 중간 '.Zoom'하며 웃기도 했다. 순식간에 비난의 화살은 김보름 선수를 집어삼켰다.

빙상연맹은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백월기 감독은 "노 선수의 의견을 수용했던 것이며, 경기 당시 응원 소리에 지시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책임 없는 발언만 했다. 그 자리에서 타깃은 김보름 선수뿐이었다.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상기시켜보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번 일의 가장 큰 책임은 과별형성과 선수 밀어주기를 주도한 빙상연맹에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일련의 기자회견과 사과에서 빙상연맹의 책임은 쑥 빼져있었다. 방패막이로 쓰인 것은 김보름 선수였다. 물론 잘못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패막이로 쓰여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였다.

주인공이 숨다보면
피해자는 사회가 된다

이제 이런 전개는 불편하다 못해 불쾌하다. 이런 식의 꼬리 자르기는 비단 이번 사태뿐 만 아닌,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제일 손 쉬우면서도 간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인공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극의 위기가 다가오면 늘 무대 뒤에 숨어서 다음 공연을 기다린다. 피해자가 되는 것은 늘 애꿎은 조연들이다. 한껏 비난의 화살을 맞고 나선 버려지거나,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퇴장해버리고 만다.

결국 피해자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진짜 주인공들은 일이 잠잠해지길 기다렸다가 그동안 해왔던 악습을 답습한다. 조금 더 영악해지고,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상처는 원래 없었던 것인 양 멀쩡히 생활한다. 그러나 상처는 치료되지 않고 속에서 꽂아갈 뿐이다.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알아채기며 우리는 각자도생하기에도 너무 바쁘다. 손쓸 수도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방법은 하나다. 모두가 상처를 들추고, 찢고, 터뜨려 치료받는 것. 숨기거나 은폐하지 말고 당사자가 직접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상황을 되풀이 하지 않으며 노력하는 것. 자신의 잘못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고쳐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누가 침을 뱉을 수 있으랴.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숙 | 편집장 박지영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경기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12

교수님, 강의계획서는 언제쯤…?

강의계획서 게시율 조사

박예령 기자 cyon03@knu.ac.kr
신정인 기자 sj0201@knu.ac.kr

수강희망과목담기(과목담기)를 하던 A(경영학 2016) 씨는 이를 포기했다. 빈 강의계획서들 때문이다. A 씨는 “강의계획서가 작성돼있지 않으면 그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성민(언론정보학 2017) 씨도 마찬가지다. 오 씨는 “수업개요, 반영비율, 주차별 수업내용까지 과목담기 전에 확인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렇지만 텅 빈 강의계획서 때문에 강의 이름만으로 수업내용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강의계획서 게시율 높은 단과대 공통점은 교수 협조

학생들에게 강의계획서는 강의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강의계획서는 한 학기 동안 수강할 수업의 수업목표와 수업유형, 주차별 수업내용 등의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

우리신문은 2차 과목담기 기간이었던 지난 1월 17일부터 18일 양일에 걸쳐 각 단과대학별 강의계획서 게시 비율(후마니타스칼리지, 자연계열, 기타 강의 제외)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강의 중 계획서를 올리지 않은 강의 비중’은 서울캠퍼스 34.2%, 국제캠퍼스 23.2%로 나타났다. 10개 중 3개 강의는 강의 이름만 보고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과대학 전체 강의 중 강의계획서가 게시돼있는 비율(게시율)’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 단과대학도 4군데나 있었다. 그중 약학대학의 게시율은 35.10%로 가장 낮았으며 음악대학(39.6%), 외국어대학(48.4%), 경영대학(49%)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90% 이상의 게시율을 보인 단과대학은 7군데로 동서의학과(100%), 의과대학(100%), 자율전공학과(100%), 생명과학대학(93.7%), 미술대학(93.2%), 체육대학(91%), 생활과학대학(90.5%)이다.

가장 낮은 게시율을 보였던 약학대학의 이경태 학장은 “약학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이라 논문 작성, 실험, 연구과제 등으로 교수님들이 많이 바쁘시다. 그래서 업로드가 늦어지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로 모두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어대학 행정실의 수업관리 담당자는 “교수님들께 입력 기간을 안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재촉을 하는 데

〈2차 수강희망과목담기 기간의 강의계획서 미게시율〉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단과대학	미게시율	단과대학	미게시율
약학대학	64.9%	외국어대학	51.6%
음악대학	60.4%	예술디자인대학	35.9%
경영대학	51%	전자정보대학	22.7%
호텔관광대학	40.9%	응용과학대학	17.2%
한의과대학	33.2%	공과대학	15.5%
무용학부	25%	체육대학	9%
치과대학	23.9%	국제대학	8.5%
문과대학	23.6%	생명과학대학	6.3%
이과대학	20.1%	동서의과대학	0%
정경대학	19.5%	(합) 313/1348	23.22%
간호과학대학	15.2%		
생활과학대학	9.5%		
미술대학	6.8%		
자율전공학부	0%		
의과대학	0%		
(합) 723/2114	34.20%		

* 조사일: 2018년 1월 17일~18일
* 미게시율 = (강의계획서가 올라가지 않은 강의 수/ 단과대학 전체 개설강의 수)*100
* 단과대학 별 개설강의 중 ‘졸업논문’ 과목은 조사에서 제외함

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과목담기 기간까지 강의계획서를 올리지 않은 약학대학 B 교수에게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같은 강의를 담당하던 다른 교수님이 연구년을 가서서 강의계획서 업로드 주체를 혼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대학 C 교수는 “입력하는 것을 놓쳤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높은 게시율을 보이는 단과대학의 경우 공통점은 교수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의과대학 행정실 김은정 계장은 “행정실 측에서는 여러 차례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고 있으며, 교수님들께서 바쁘시지만, 수업이나 계획서 작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업로드해 주신다”라고 말했다.

강의계획서를 관리하는 학사지원과는 매년 6월과 12월, 즉 1차 과목담기 전에 각 단과대학에 강의계획서 업로드에 대해 첫 안내를 한다. 이후 과목담기 기간, 수강신청 기간, 개강일까지 계속 단과대학에 업무 연락과 유선 연락을 반복한다. 학사지원과의 안내를 받은 단과대학은 개별 교수에게 이를 다시 안내한다. 학사지원과의 강의 담당 직원은 “강의계획서 미작성에 대해 제재할 방안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다. 이는 교수님들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단과대학이나 학사지원과가 더 이상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의계획서 입력 기간까지 게시율을 100%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사지원과가 파악하고 있는 지난 3개 학기의 최종적인 강의계획서 업로드 비율은 100%에 육박하지만, 이는 4월에 파악된 것으로서 희망과목담기와 수강신청 기간이 한참 지난 뒤다. 학생들의 시간표가 이미 확정된 후이기 때문에 수강신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강의계획서 게시 여부

교수 업적평가에 반영하기도

과목담기 기간에 올라오지 않는 강의계획서 때문에 불편함을 토로한 D(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6) 씨는 “과목담기를 놓치면 사실상 수강신청에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과목담기 전에 다음 학기 수업 정보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희망과목담기 전에 계획서를 올려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연세대는 강의계획서 작성 여부를 교수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정해진 기간에 강의계획서를 업로드하기 위해 연세대는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45조 제2항의 내용을 지난 2007년에 신설했다. 그 내용은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 전까지 미등재 시 학점 수 대비 2배수 감점하며, 개강일 전까지 미등재 시 학점 수 대비 2배수 추가 감점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건국대, 서강대, 인하대학교 등도 교수업적평가에 강의계획서 게시 여부를 반영하여 교수의 강의계획서 게시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전공 선택 폭 넓어질듯

2018학년도부터 융합전공 운영



장유미 기자 yummy0825@knu.ac.kr

상, 또는 각각 8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빌의할 수 있다. 이후 융합전공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장이 설치를 결정한다.

국제캠 승인완료

서울캠은 늦어졌다

서울캠퍼스(서울캠) 학사지원과 백지원 계장은 “이과대학과 경영대학로부터 데이터과학융합전공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혀 위의 6개 전공 외에도 이후 계속적으로 새로운 융합전공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융합전공 교육과정은 참여 학과(전공) 별 교과목을 균형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참여 학과의 기존 과목뿐 아니라 융합전공의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으며 국제캠 5개 전공은 2월 초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각 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을 확립했다.

백 계장은 “국제캠퍼스의 5개 전공은 다승인이 났지만 서울캠퍼스의 도시재생전공은 결정이 늦어졌다”라며 “지리학과와 주거환경학과로부터 신청은 받았지만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시행세칙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계장은 “도시재생전공은 올해 시행 확정이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1학기 혹은 2학기부터 학생들의 융합전공 이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융합전공에 참가하는 학과 학생은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제1전공 허가는 입학 후 3~5학기 내에 융합전공 지도교수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융합전공에 참여하지 않는 학과 학생은 다전공으로 이수 가능하지만, 아직 명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은정(영어학부 2016) 씨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아래 융합전공 제도를 도입한다면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 학사지원과 측은 “오는 3월 1일까지 융합전공 개설을 완료하고 1학기 말부터 이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전했다.

		한국어·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8. 3. 12.(월) ~ 4. 20.(금)		■ Level Test		■ 영어회화 : 2018. 3. 7.(수), 3. 8.(목) 17:30	
		■ 접수기간 : 2018. 2. 12.(월) ~ 2018. 3. 9.(금)				■ 일본어·중국어회화 : 2018. 3. 7.(수) 17:15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Intermediate / High Intermediate / Advanced				Beginning / Intermediate / Advanced	
	수강료				150,000원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오후반 18:30~20:00 (화)	
	레벨	Ted Talk		Academic Writing Workshop		Screen English	
	수강료	150,000원		120,000원		90,000원	
일본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고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수강료				150,000원		고급
중국어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 초급2 / 초급3 / 중급1 / 고급1 / 고급2		초급1	초급2	초급3	고급1
	수강료				150,000원		고급2
스페인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수, 금)		오후반 19:00~20:20 (수, 금)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20,000원	Discussion and Debate
프랑스어	시간			오후반 18:00~20:00 (월, 수)		오후반 18:00~20:0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3	
	수강료				150,000원		
독일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월, 목)	오후반 19:00~20:20 (월, 목)	오후반 17:30~18:50 (화, 금)	
	레벨			초급1		초급3	
	수강료				120,000원		
이탈리아어	시간			오후반 17:30~18:50 (화, 목)		오후반 19:00~20:20 (화, 목)	
	레벨			초급1		초급2	
	수강료				120,000원		

‘안전불감증’, 우리학교 화재안전 위협

우리 신문, 화재안전 자체조사 실시

최명구 기자 gyumyeong@knu.ac.kr
민지호 기자 zkoxoj@knu.ac.kr
양여진 기자 clcl@knu.ac.kr

의과대학원 3층 대피로 계단, 각진 철골, 담배꽁초가 가득 담긴 쓰레기봉투, 목판이 대피로를 막아섰다. 계단 옆 책장에는 환풍기 6개가 좁은 공간을 비집고 앉아서 허겁지겁 쌓여있다. 평소에도 이곳을 통해 3층과 4층을 오가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우리 신문은 최근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 이후 우리학교 화재안전 자체조사를 진행했다. 7월(1월 28일~2월 1일, 2월 5일~8일) 간 우리대학 27개 건축물(△단과대학 18곳, ▲본관, ▲학생회관(서울, 국제), ▲중앙도서관(서울, 국제), ▲멀티미디어교수관, ▲청운관, ▲네오네오네스관, ▲선운관) 내부의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라 할 수 있는 5개 항목(▶방화문,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대피로) 중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례를 찾아냈다. 기존 이과대학, 한의과대학과 신축 단과대학들은 이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조사에서 제외됐다.

“주의, 방화문 폐쇄·훼손·변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과학대학원 1층 방화문은 방화문 관리 위반행위를 저지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짝 열려있었다.

“주의, 방화문 폐쇄·훼손·변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생활과학대학원 1층 방화문, 닫힌 상태를 유지하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음에도 활짝 열려있었다.

“화재감지기 자체폐쇄 장치”를 설치해 화재안전 확보와 더불어 깊은 방화문 개폐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한 사례도 있었다. 공과대학원 전자정보대학원,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도서관은 자석식 화재감지자 동폐쇄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평소 열려있던 방화문이 화재사고 시 자동으로 닫히게끔 하는 장치이다. 공과대학 행정실 오승주 과장은 “자석식 폐쇄장치 설치 이후 화재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매번 여닫는 불편함이 해소돼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대피로, 소화전, 완강기 앞에 물건이 쌓여 있어 탈출과 화재 초기진압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행위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화문은 화염과 유독가스 화신을 막는 기본적인 화재안전시설이다. 항상 닫힌 상태가 유지돼야 하지만 여닫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방화문을 열어 놓는 사례가 있다. 단과대학 청소노동자 A 씨는 “매번 여닫기 불편하고 환기 등의 이유로 방화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전문가들은 방화문이 닫혀 있어야만 유독가스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가 화재사고의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 뿐만 아니라, 경일대학교 공학대학원(소방재학) 교수는 “가스의 상승 속도가 최대 초 속 5m까지 올라가는 만큼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삼시간에 건물 전체로 유독가스가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 또한 방화문이 화재사고 시 열려 있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문은 ‘언제나 닫혀있는 구조’거나 화재발생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양 캠퍼스 관리팀은 방화문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위반사례 시정조치를 통보하는 등 방화문 관리에 유의해달라는 구호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문을 매번 여닫아야하는 불편함에서 기인한 부주의로 인해 기능을 못하는 방화문이 눈에 띠었다. 양 캠퍼스 관리팀은 “방화문 관리팀을 위해 관리팀 직원이 매일 같이 우리학교 모든 건축물에 상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구성원들의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재감지기 자체폐쇄 장치”를 설치해 화재안전 확보와 더불어 깊은 방화문 개폐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한 사례도 있었다. 공과대학원 전자정보대학원, 국제캠퍼스(국제캠) 중앙도서관은 자석식 화재감지자 동폐쇄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평소 열려있던 방화문이 화재사고 시 자동으로 닫히게끔 하는 장치이다. 공과대학 행정실 오승주 과장은 “자석식 폐쇄장치 설치 이후 화재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매번 여닫는 불편함이 해소돼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대피로, 소화전, 완강기 앞에 물건이 쌓여 있어 탈출과 화재 초기진압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위반 행위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화문은 화염과 유독가스 화신을 막는 기본적인 화재안전시설이다. 항상 닫힌 상태가 유지돼야 하지만 여닫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방화문을 열어 놓는 사례가 있다. 단과대학 청소노동자 A 씨는 “매번 여닫기 불편하고 환기 등의 이유로 방화문이 항상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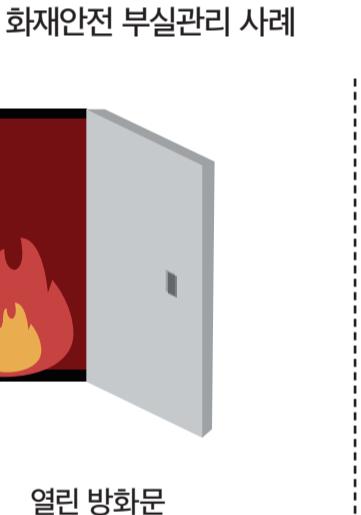
의과대학원 3층 대피로 계단, 각진 철골, 담배꽁초가 가득 담긴 쓰레기봉투, 목판이 대피로를 막아섰다. 계단 옆 책장에는 환풍기 6개가 좁은 공간을 비집고 앉아서 허겁지겁 쌓여있다. 평소에도 이곳을 통해 3층과 4층을 오가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생활과학대학원 1층 방화문, 닫힌 상태를 유지하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음에도 활짝 열려있다.

제조일 2000년 소화기의 기압바늘이 정상사용범위를 벗어났다. 제조일 2013년 소화기의 안전판은 뽑혀있다.



내용연수 초과소화기 미교체



열린 방화문



소화전·대피로·완강기 앞 물건 적치

“

소화전 앞 적치,

10년 넘은 소화기,

1분 1초가 다급한 화재사고에서

초기진압 놓칠수도

“

소화전 앞 적치,

10년 넘은 소화기,

1분 1초가 다급한 화재사고에서

초기진압 놓칠수도

년인 내용연수를 초과한 상태였다. 특히 210개 중 203개(96.7%)는 국제캠에 배치된 소화기였다. 국제캠 12개 건축물 총 674개 소화기 중 203개(30.1%)가 2007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소화기 3개 중 1개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흐름이다. 심지어 1996년에 제조된 소화기가 방치된 채로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개정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최초 15년으로부터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소화기를 매달 수십 개씩 교체했다”고 말했다.

내용연수 초과 소화기

제때 교체해야

교육을 필요로 해야한다”며 “화재사고를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인식이 제고되려면 소방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화재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선 효과적인 교육도 뒷받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학교 학생은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안전교육은 이를 피해가기 위한 각종 편법들이 산재해 실효성을 갖추기 어려웠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교육 서비스의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우리학교 소방시설을 통해 수강시간을 줄일 수 있는 편법을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전교육 5분 만에 6시간 이수하는 법’이란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안전의식 제고할 안전교육

편법수강 성행

또한 안전교육은 매년 ‘소방종합경합집점’과 ‘작동기능집점’을 시행한다. 이는 현행 소방점검제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매년 두 차례 이뤄지는 소방점검은 기간이 사전에 공지되고 있어 평소 관리가 미흡했다라도 일시적 대응이 가능하다. 승상사이버대학교 이정일(소방재학) 학과 교수는 “작동기능집점과 험장장을 설치해보면 화재경보기 등 화재안전시설을 작동기능집점 기간에만 켜 놓는 것이 테반”이라며 “사전 통보되는 소방점검은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각 단과대학 소방시설 관리도 주체구심으로 이뤄져고 있다. 우리학교 ‘안전관리규정’은 보통 단과대학 학장과 같이 각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소속부서장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직원이 소방시설 관리를 겸하고 있다. 즉 소화기 점검, 방화문 배치, 대피로 관리 등 각 건물 안전시설의 수시관리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 소속 행정직원 주제로 이뤄진다.

광주 운남중학교는 ‘SW연계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대처법을 학생 스스로 인지하게끔 유도했다. 7대 표준 안전영역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SW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나섰다. 이에 운남중학교는 ‘SW연계 안전교육’은 교육부에서 주최한 ‘2016년 학교 안전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리학교도 서울특별시청 재난대책본부와 관학협력을 통해 체험실 기반의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립 후마니티스칼리지 ‘공감·배려·안전’ 과목은 다양한 실습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가 습득된다. 학기 중 광주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시민안전과수원 인증이 주어진다. 학생 만족도도 높아 2018학년도 2학기에는 국제캠퍼스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안전교육 전문가 정재원 교수는 “다수의 학생들이 체험을 즐기면서 학습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가 습득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도 서울특별시청 재난대책본부와 관학협력을 통해 체험실 기반의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립 후마니티스칼리지 ‘공감·배려·안전’ 과목은 다양한 실습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가 습득된다. 학기 중 광주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시민안전과수원 인증이 주어진다. 학생 만족도도 높아 2018학년도 2학기에는 국제캠퍼스로 확대운영될 예정이다. 안전교육 전문가 정재원 교수는 “다수의 학생들이 체험을 즐기면서 학습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가 습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실 소방관리 담당 직원조차 본래의 행정 업무가 주된 상황에서 소방시설 관리가 체계성을 갖추는 것은 어려웠다. 소방시설관리가 청소·경비원의 환경개선 업무에 끼워지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시정되는 경우 많았다.

한 단과대학 행정실 시설관리 담당직원 A 씨는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소방점검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소방교육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방시설 관리 업무에 대해 기여하는 행정직원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 단과대학 행정실 시설관리 담당직원 A 씨는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소방점검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소방교육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방시설 관리 업무에 대해 기여하는 행정직원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규정 10조(교육)에 따라 관리팀은 우리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실 소방관리 담당 직원조차 본래의 행정 업무가 주된 상황에서 소방시설 관리가 체계성을 갖추는 것은 어려웠다. 소방시설관리가 청소·경비원의 환경개선 업무에 끼워지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시정되는 경우 많았다.

한 단과대학 행정실 시설관리 담당직원 A 씨는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소방점검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소방교육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방시설 관리 업무에 대해 기여하는 행정직원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안전관리 규정 10조(교육)에 따라 관리팀은 우리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실 소방관리 담당 직원조차 본래의 행정 업무가 주된 상황에서 소방시설 관리가 체계성을 갖추는 것은 어려웠다. 소방시설관리가 청소·경비원의 환경개선 업무에 끼워지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시정되는 경우 많았다.

한 단과대학 행정실 시설관리 담당직원 A 씨는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소방점검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소방교육조차 없는 상황에서 소방시설 관리 업무에 대해 기여하는 행정직원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2018년 1학기 평화복지대학원 유엔평화학과 오준 교수 강좌안내

수업과정: 석사과정

강의제목(주제):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유엔과 국제평화안보)

수강신청과목명: UN & International Organizations(UN과 국제기구)

강의교원: 오준

강의장소/일시: 청운관 301호/ 매주수요일 저녁7시~10시

비고: 본 강의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등록기간: 2018.2.27.~2018.3.9.

강의기간: 2018.3.7.~2018.6.20.

세부내용: 경희대학교 Global Eminent Scholar(경희대 ES)로 재직중인 오준 전유엔 대사이번학기 강의입니다

평화복지대학원생들 뿐 아니라 경희대학교 전체 대학원생(원)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정식수강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소속 대학원(원)생 정시를 통해 학점인정 여부를 확인후, 평화복지대학원으로 타

대학원 수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 강의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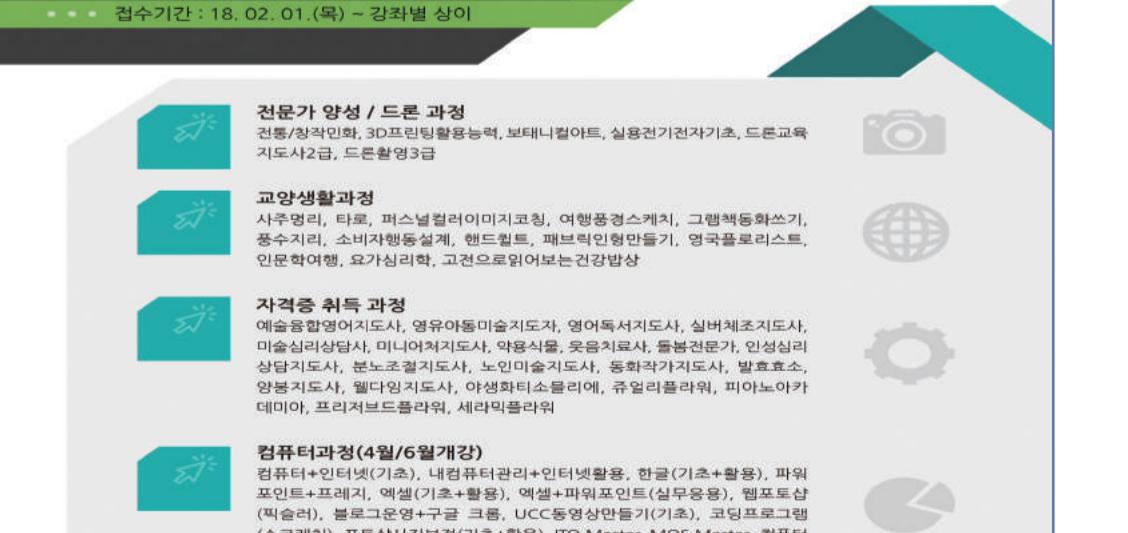
• 이메일: gjp@kn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강생 모집 안내

전문가 양성 / 교양 생활 / 자격증 취득 드론 / 컴퓨터 과정

• 검수기간 : 18. 02. 01. (목) ~ 강좌별 상이



교육기간 : 2018.03.05.(월) ~ 2018.06.30.(토) 강좌별 상이
수강기간 : 후기수강자(3월 1일~31일) 4월 1일~30일
접수 문의 : Tel. 031)201-3377 E-mail. ice@knu.ac.kr
교육일정 : 매주 일요일 저녁 7시~10시(3월 1일~31일)

##

보도

“대외 평판도에서 대전환 이룰 것”



대외협력부총장에 박영국 치과대학 교수가 새로 임명됐다. 박 부총장은 평판과 재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사진=박지영 기자)

신임 부총장 인터뷰-①대외협력부총장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2월 9일 치과대학 박영국 교수가 신임 대외협력부총장에 임명됐다. 박영국 대외협력부총장은 이번 발령으로 재정예산처장과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단장, 치과대학장과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겸임하게 됐다. 박 대외협력부총장은 “개교 70주년을 앞둔 시점에 대외협력부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학다운 미래대학을 향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 부총장이 밝힌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내년으로 다가온 우리학교 개교 70주년이다. 박 부총장은 “우리학교의 위상제고를 위해 국내외 평판도를 높임으로써 구성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학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유치를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개교 7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구상 중이며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세계 100대 대학으로의 지위 확보를 목표로 삼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부총장은 우리학교의 평판에 대해 “최근 우리학교는 국내외 대학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문제점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총장은 “국외 대학평가에서는 평판도 지표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국내 대학평가에서는 평판도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며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구성원과 동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평판도 부분에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학교의 대외평판도 제고를 위한 TF(Task Force) 구성 계획을 밝혔다. 이번 TF는 대외협력부총장 산하의 별도 기획그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 부총장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구성원과 동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평판도 부분에서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평판도 상승은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바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구성원을 격려했다.

또한 개교 70주년에 맞춰 교육, 연구, 실천 분야에서 다양한 기념사업도 구상 중이라며 “이에 맞춰 발전 기금 모금 캠페인 도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전 기금 모금 캠페인은 재정 운용 유연화를 위한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다. 박 부총장은 캠페인 뿐 아니라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기금 유치, 대형 국고 지원 사업 유치, 대외장학 유치의 적극적 추진 등 재정 악화를 대비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입학전형료 폐지, 입학금 단계적 축소, 등록금 동결 등이 재정을 압박해 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박 부총장은 “대학은 교수, 학생, 교직원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하는 복합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성원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소통 체널을 통해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항상 구성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소통과 화합의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우리 대학의 미래가 세계대학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구성원의 참여를 당부했다.

U-class 시스템은 어떻게 멀어졌다?

안나연 기자 na@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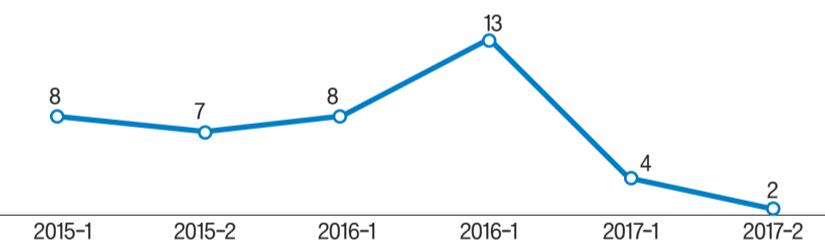
2006년 도입될 당시 효율적인 강의를 목적으로 책상에 부착된 U-Class(유클래스) 출석시스템은 현재 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인사이드RF 측은 무상으로 제공했던 배터리 교체에 대한 비용을 요구했다. ㈜인사이드RF 담당자는 “소모품 비용에 대한 계약은 2014년까지였지만, 이후에는 경희대학교에 특별한 애정이 있어 단말기 배터리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다”고 밝혔다. 유클래스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130만 원의 비용이 들 전망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출결시스템을 완전히 탈착하는 데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시스템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한 추후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대형강의인 ‘빅뱅’에서 문명까지에서 특히나 불만이 많았다. ‘시스템을 통해 출석확인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 ‘고장난 기기가 많아 고장 나지 않은 것을 찾는데 불필요한 시간을 보냈다’와 같이 출석의 용이함을 위해 설치된 유클래스 시스템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출석 확인 방식이 호명으로 변경됐다.

㈜인사이드RF 측은 이런 불만에 대해 “해당 시스템은 일반 교양관이 아닌 의과대학에 더욱 적합해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과대학의 경우 일반 교양강의실과 달리 한 강의실에 학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적으로 특정한 학생이 수업을 듣기 위해 유클래스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클래스 시스템이 설치된 서울대 의과대학,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청운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울대 의과대학은 “2015년 이후로 유클래스 시스템의 사용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으며,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잦은 고장을 이유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유클래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정기적, 상시적 유지 보수가 있어왔다”며 사용을 하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클래스 시스템 담당자인 ㈜인사이드RF 또한 “기기가 노후화 되어 출석을 확인할 때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뿐 못 쓰는 기기는 없다”며 “지난 12년간 고장 나서 못 쓰는 기기에 대한 접수는 5건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3개년간 유클래스 시스템 활용 강의 수〉



2018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학군사관(ROTC) 59·60기 후보생모집안내

오늘의 선택
내일의 리더
대한민국
ROTC

지원자격

- 연령: 임관일 기준(만 20~27세 이하인 남여)※ 제대군인 응시연령은 군복무기간을 합산함
- 학군 제59기(남여 모두 가능): 4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3학년 재학생)
- 학군 제60기(남자만 해당): 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5년제 학과는 2학년 재학생)

지원서 접수 및 모집일정

- 기간: 2018년 3월 1일 ~ 4월 4일
- 방법: 인터넷 www.armyofficer.mil.kr [지원자 접수]란 이용
- 일정
 - 1차 필기고사: 4. 7.(토), 합격자 발표: 4. 26.(목)
 - 2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4. 28.(토) ~ 5. 25.(금), 합격자 발표: 6. 20.(수)
 - 3차 신원조사, 신체검사: 5. 14.(월) ~ 7. 27.(금), 최종 합격자 발표: 8. 17.(금)
- 문의처: 육군학생군사학교(043)830-6031, 서울캠 학군단: 02) 961-0085 / 국제캠 학군단: 031) 201-3271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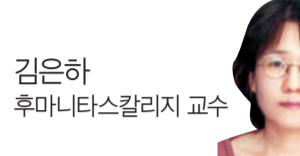
육군학생군사학교
www.armyofficer.mil.kr

Reserve Officer Training Corp는 대학재학생 중에서 우수자를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의 전공학문은 물론 군사지식을 갖추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대학에 퍼져있는 '방관자'를 없애려면

교수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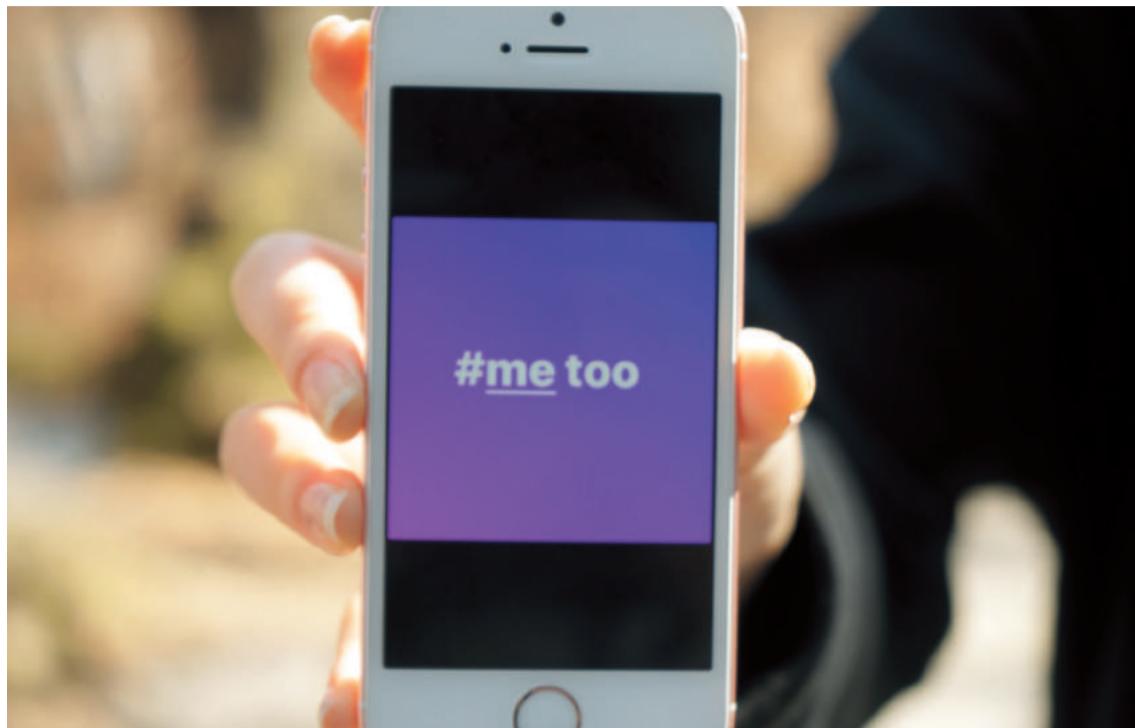


2016년 문단을 중심으로 “미투” (#MeToo) 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는 깊은 각성에 이르지 못했다. 성폭력은 문단의 사정인 양 치부되었고,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입는 부조리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전 서지현 검사가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백한 후, 운동의 불씨는 다시 살아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날마다 새로운 고발을 접하며 세상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면 대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월음을 알고 있다. 그녀 자신이 피해자이거나 이유 모를 폭력으로 괴로워하던 친구 한 명쯤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불어온 미투 열풍이 다행스럽게 여겨지기 조차 한다. 추악한 비밀을 봉인해 버린다면, 트라우마는 피해자를 집어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공감을 받기는커녕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된다. 피해자들은 “쟤, 원래 이상하잖아”하는 식의 공격을 받고, “꽃뱀”이라는 프레임과 싸워야 한다. 꽤 똑똑하다는 이들조차 성폭력을 겪지 않는 애정 표현, 짓궂은 장난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기 때문에 “예민하다”거나 “순진하다”는식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비밀을 삼킨 채 침잠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욕망을 반성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과도에 훨씬 더 사라지지만 가해자는 살아 남아 부와 명예를 챙기는 것이다. 미투 운동에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가해자가 두려워 스스로 몸을 숨겼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 가해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번듯한 조직에 속한 예술가, 배우, 교수 등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



(사진=설지연 기자)

목되었다. 그들은 사회적 인정 투쟁에 실패한 ‘취약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 업적을 쌓아온 성공한 남자들이었다. 성폭력은 “훌륭한” 남자들이 권력을 독차지한 곳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권력형 범죄임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 이 그들 중 다수는 욕망에 시달리는 ‘남자’ 말고 성숙한 ‘여론’은 없는가, 외치고 싶을 만큼 노년의 남자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경악’보다, 혐오스러운 가해자를 통해 ‘여성’이 되어 보는 공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젊은 여성에게 세상이 넥타이를 맨 “괴물”들이 버티고 선 채 너를 키워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적 육체, 보살핌 노동, 정서적 위안을 요구하는 ‘지옥’임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재능 있는 여자가 왜 모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었는지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성폭력은 예술계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주의가 강하고 인간의 관계가 위계화된 곳 어디에서든지 죄악은 짜를 수 있다. ‘연희단 거리 패’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예술과 생활을 함께 하는 공동체였다. 그곳에서 이윤택은 산업체 부

설 야간 학교를 운영해 이익과 명예 모두를 거머쥔 사업가처럼 단원들의 노동력과 재능을 이용해 흑자를 냈다. 그는 “너는 나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야”라고 단원들을 위협하며 자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다. 근면이 가져온 성과들은 우리가 업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안겨줘 조직을 신성화했기 때문에 황토방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섬세하고 예리한 감정을 잃게 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수치심은 도덕 감정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이다.

대학은 성폭력의 예외 지대가 아니다. 대학 역시 교수/학생, 교수/행정 직원, 정규직/비정규직 등등 인간이 구획되고 관계는 위계화된 신분 사회다. 또한 여성 교수 비율이 다른 사회 조직보다 낮고, 요직은 남자들이 독점한 가부장제의 마지막 신화 같은 곳이다. 물론 대학은 ‘인간성 실현을 위한 교육’을 내세우며 자기 변화를 모색해 왔지만 ‘인간’을 젠더, 계급, 인종, 지역 등 차이가 지워진 모호한 말로 전유한다면,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무능력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3월의 대학가에서는 미투 열풍이 뜨겁게 불 것이다. 교수 성폭력, 학생 간 성폭력 등 ‘대나무 숲’에서 떠돌던 소문들이 오프라

인으로 나와 공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글을 쓰는 현재까지 대학이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은 들려 오지 않는다.

오래 전 꽃이 핀 봄 날에, 친구에게 서 시 쓰는 선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백을 들었다. 그 때 나는 깊이 상처 입은 친구에게 쓸모 있는 말 한마디 해 주지 못했다. 마음이 아니라 언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세상을 즐겨 분석했지만, 자신의 젠더 경험을 해석할 언어가 없는, 자기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다. 지금의 여대생들은 예전의 우리와 다를까?

대학에서 ‘페미니즘’ 교과목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페미니스트=“꼴페미”라는 낙인이 견고하게 자리 잡은 것을 보면 낙관하기 어렵다.

이번 미투 운동의 성과가 있다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방관한 것도 ‘도덕적 죄’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대학이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않으려면 늦기 전에 페미니즘 교육을 해야 한다. ‘휴머니즘’이라는 모호한 말 뒤에 숨지 말고 우리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외쳐야 한다. 그것은 대학이 여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이고 응원일 것이다.

오윤자의 마음 코칭 - ①

영미~ 내 이름을 힘껏 불러보세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닌 ‘아프면 환자’가 화제가 됐던 때가 있다. 이 일갈에서 우리는 청춘의 현주소를 짚어볼 수 있었다. 아프단 말도 쉽게 못하고, 열정을 강요받아야 하는 청춘들에게 마음 코칭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편집자주)

“1학년 때에도 그랬구요. 입시 끝나고 대학에 들어왔어도 허무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취업도 어렵다고 하니 무섭고 나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화 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 줄지 궁금하다. 의욕 없음이 절절한 하소연을 듣다보면 우선 대2 병도 있겠다 싶다. 지옥 같았던 입시를 치루고 났으나 자동적인 보상을 기대한 듯 하고 어수선하게 들리긴 해도 어딘지 모를, 무엇인지 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자신에 대한 언급에서 모르겠다는 공통적인 단어를 찾을 수 있다. 한편으로 두렵게 생각될 수 있어도 비로소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가고 있다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기도 하다. 즉, 심각한 문제 속에서 해결 가능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감각 유지에 주목해야 한다. 함께 생각해 보자. 지난 해 가을 캠퍼스에서, 단풍이 계절의 전부인 듯 단풍잎 가득한 나무들에 눈길을 맞추었는데 이후 한 일 두 일 떨어져 더 멋진 가을 가을을 만들고 그해 가을의 균형을 이루었다. 새해라 의미를 부여했던 1월이 아쉽게 지나가 염려가 있을 즈음 2월 동계올림픽으로 뜻밖에 일상의 황재

를 만나며 균형감각을 찾았다. 게다가 동계 올림픽에서 그동안의 관심은 스피드와 피겨 스케이트였는데 컬링과 스켈레톤으로 옮겨가며 관심과 종목의 쏠림 현상이 환기되었다. 더욱이 컬링에서 외쳐진 ‘영미’는 위기의 순간마다 경기의 균형을 찾게 하여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다.

‘모르겠음’을 벗어나 균형감각 유지해야

아마도 알아챘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분은 고3까지 타율적이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방식으로 학교와 학원은 물론 그 외 생활에서도 거의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며 지내왔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면서 최소한 학교에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에 기반한 독립적인 생활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기에서의 경험에 머무르기가 쉽다. 따라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내심 타자의 결정을 기대하며 ‘잘 모르겠음’으로 일관하는 경향을 뛴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인생인데 내가 아닌 타자가 오랫동안 선택과 결정을 해주었고 와중의 인생사건(life

events)에서 나름의 성공을 성취하기도 했다. 이러한 생활주기(life-cycle)가 변화된 발달단계에 위치한 청년기에서도 지속되면 사회 부적응적인 완벽주의가 습관처럼 자신을 지배하기 쉽다. 그러나 의욕이 없고 매사 모르겠다고 일관할 밖에. 대2 병에서의 탈출을 위해선 균형감각 유지가 필요하다.

성격발달이론의 대가 Erik Erikson은 청년기의 발달과 개인 정체성을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인간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성과 동질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통해 사회 속의 자신을 형성해 간다. 여기서 균형감각의 유지는 통합적인 인간의 발달을 돋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교과목 숙제들로 다소 소홀했던 통합적인 정체성 발달을 수행하기 위해선 우선 균형감각의 유지를 권해 본다. 현실이 다가왔을 때 균형을 이루게 하는 심리적 탄력성 내지 면역성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할 수 없음에 숨어있는 실체는 할 수 있음 내지 하고 싶음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바람대로 자신을 알아야 하니, 각자의 마음에 로그인해 들어가 보자. 자신에게 구체적인 믿음을 가져 보자. 잘될 것이라는

확신 있는 기대감을 가져 보자. 혹시 떠오르는 실수의 기억은 그대로 인정하는 동시에 또 다른 경험으로 받아들여 보자.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나는 대로 다만 서너 개만 적어 보자. 그 중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우선 시작해 보되, 모르겠음은 알 수 있음, 의욕 없음은 숨겨진 의욕 있음이라는 사실 중심의 균형감각 유지를 명심하자. 혼자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문 상담사를 활용하는 방식 역시 균형유지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스스로의 이름 부르기로 일어날 기적들

3월이 지날 즈음, 누군가에 의해 불려졌던 내 이름을 스스로 힘차게 불러 보자. 청년기는 사회적 정체성(누군가 부르는 내 이름)과 개인적 정체성(내가 부르는 내 이름)과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이다. 없다고 생각했던 의욕은 이미 마음에 자리하고 있을 테니 확인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단순한 방향을 설정해 보기 바란다. 이후에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났을 균형유지의 소소한 기적들에 대해서 꼭 듣고 싶다.

참여마당

박원규
(사학 2014)



2018-1학기의 대학사회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나?

우리 학생회 현실은 비참하다. 2018년은 유례없이 중앙단위대표자들이 전부 퀘위다. 2014년 이후 지속된 총학생회 단선, 참여율 저조 등 이미 몇 해 전부터 예견된 불상사다. 대학사회는 왜 더 비참해지는가? 필자는 제도부터 바로잡아야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겠다고 생각한다.

제도 중 으뜸으로 주권자의 권리행사와 직결된 ‘선거제도’를 짚을 수 있다. 모든 문제 상황을 다룰 수 없으니, 최근 3년 간 필자가 참여한 중앙단위선거의 선거제도를 단적으로 제시해보겠다. 필자는 2016년 11월 중앙운영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로, 2017년 3월 선거관리위원회 참여위원회로, 2017년 11월 후보자로 각각 선거에 참여한 적 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과 달리 학내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들에게 무척 관대하다. 일례로 2016년 11월 ‘경희의 화합’ 선본의 ‘성평등위원회 신설’ 공약이 이슈가 되자 이를 비판하는 대자보와 선본 측의 반박 대자보가 수차례 게시됐다. 이어 48대 ‘취향저격’ 선본의 ‘PRIME사업’, 49대 ‘열’ 일 선본의 ‘SPACE21 부실 건설 문제에 대한 입장’까지 모든 대자보는 겸멸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50대 선거 도중에 부착된 모든 대자보는 선관위의 겸멸을 받았다. 중도사퇴한 중선관위원회가 ‘특정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대자보를 부착하기도 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제도부터 바로 잡아야

학생회 선거제도가 공직선거법처럼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해왔다면, 선거운영의 변화가 가능했을까? 나아가 당선자 결정 기준, 투표방법과 같은 제도를 결정할 때 주권자에게 의사를 물은 적이 있었던가? 우리 학생은 등록금, 학생자치회비 등 중요한 사안을 위임한 학생대표에게 질문해야하지 않을까?

위 예시의 선거제도는 2016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로 만든 선거제도다. 2015년까지 사용된 선거시행세칙이 상위법인 총학생회칙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엄중히 따져 문자면 그간의 선거 무효까지 논의해야 하는 사안은 대표자들이 밀실에서 방만하게 만든 제도로 인해 초래된 사태였다. 대표자의 제1의 책무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이다. 학생 대표자라면 응당 학생들의 권리와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공동체의 제도를 보완해가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 학생들도 이를 최우선 가치로 대표자들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학생회는 무엇보다도 학우의 참여가 있어야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 학생회와 제도가 무너진다면 당장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학생회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다. 경희대학교 학생사회에 위기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방향성에 대한 진중한 공론장이 열리길 희망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은 대학주보 온라인에 게재됩니다.

패션 크루로 함께했던 나의 평창 동계올림픽

〈Passion Crew〉

장유미 기자 yummy0825@knu.ac.kr

인연조가 춤추던 ‘충격적’ 장면도 지난 17일 간의 치열한 여정으로 이미 희미해진 듯하다. 올림픽의 주인공은 당연히 선수들지만 그들만으로 올림픽을 차려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오천여 명의 Passion Crew(자원봉사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곳곳에서 끝까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된 열정’을 보여주었다. 필자 또한 Passion Crew로 올림픽과 함께했다. TV 중계로만 접하던 ‘남의’ 축제였던 올림픽은 1월 31일부터 2월 25일 폐막까지,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도우며 숨 가쁘게 뛰는 동안 ‘나의’ 올림픽이 됐다. 그 한 달 동안의 기억을 소개한다.

아이스아레나 믹스드 존에서

일했던 한 달

1월 31일, 새벽 일찍 AD카드 등록과 유니폼 수령을 위해 평창에 있는 UAC(메인 등록센터)로 향했다. 진부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하얀 눈은 올림픽을 실감케 했다. UAC에서 약 두 시간에 걸쳐 모든 물품 수령을 끝내고 한 달 이동안 지낼 숙소로 향했다. 운이 좋게도 함께 지낼 3명의 룸메이트는 모두 대학생으로, 같은 경기장에서, 같은 직종으로 일하게 될 봉사자였다.

아직 어색한 빨간 유니폼을 입고 직무교육을 받으며 첫 근무를 시작했다. 나는 한 달 동안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Press Operation 직무를 맡았다. 그 중에서도 믹스드 존(Mixed Zone)이 내가 일한 곳이었다. 믹스드 존은 연습이나 경기를 마친 선수의 이동통로 일뿐 아니라 취재가 이뤄지는 구역이기도 하다. 경기장에서 연습이나 경기를 마친 모든 선수는 인터뷰 의사와 상관없이 믹스드 존을 통과해야만 한다. 믹스드 존에 배치된 봉사자들은 기자가 기다리는 선수가 누구인지, 선수가 인터뷰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그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

기자를 국적이나 사용 언어별로 묶어 취재를 용이하게 하기도 했다. 또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끊어서 경기를 마친 직후 지원 선수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이었다. 선수가 항상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펜스 안에서 애스코트하고 인터뷰 마이크를 대신 들어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명한 선수를 취재하기 위해 모인 많은 기자들의 녹음기나 휴대폰을 대신 들어주기도 한다. 선수의 편의 못지않게 기자들의 편의를 봄주는 것도 우리의 뜻이기 때문이다. 즉, 나는 강릉 아이스아레나의 경기용 메인링크, 연습용 링크에 각각 땔린 두 개의 믹스드 존을 관리했다. 아이스아레나에선 피겨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경기만 진행되는데 피겨 스케이팅의 연습과 경기는 주로 오전에, 쇼트트랙은 오후에 이뤄졌다. 오전 근무인 나는 피겨 선수와 접할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개막 전부터 연습 일정에 따라 믹스드 존 담당 봉사자들은 두 개의 믹스드 존을 번갈아 가며 관리했다.

연습은 필수 참석이 아니었기에 선수도, 기자도 얼마 없었다. 그래서 선수들의 연습을 지켜볼 기회가 종종 주어졌다. 그 중 북한 선수들이 처음 연습 링크를 방문하는 날이 단연 관심의 중심이었다. 우리나라 김규은, 김강찬 선수도 함께 연습에 참가했는데, 처음으로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대거 모여들었다. 연습 중 남북 두 커플의 동선이 우연히 가까워질 때면 셔터소리가 더욱 커졌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남과 북, 북과 남이야말로 어쩌면 모두가 원했던, 그래서 기자들이 원했던 그림일지도 모른다.

북한 선수의 연습이 끝나자마자 선수를 따라 링크 안에 있던 기자들이 믹스드 존으로 달려 나왔다. 한마디라도 들어볼까 쫓아가며 질문하는 기자들의 간절함이 무



①아이스아레나 전경 ②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경기 후 메달리스트들의 기자회견 ③자원봉사자의 AD카드와 배지 ④믹스드존 자원봉사자들과 헤어지기 전 기념촬영



“
믹스드 존을 빠져나가는 선수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해요”하는
인사를 건네는 여유도 가지게 됐다.
특히 각 나라의 언어로
인사를 건네자 한국어로
“감사합니다”가 돌아왔을 때,
한국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있는
순간이 자랑스러웠다.
”

색할 만큼 그들은 쏜살같이 믹스드 존을 빠져나갔다. “김연아가 와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하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처음 느껴본 취재 열기였다. 이 열기는 개막이 다가올수록, 경기가 진행될수록 더욱 뜨거워졌고, 선수가 있는 곳엔 항상 기자들이 따랐다.

2월 9일, 평소보다 이른 시간 하루를 시작했다. 이날부터 폐막까지 내 기상시간은 5시였다. “전 보다 기자들이 5배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믹스드 존 매니저의 경고에 봉사자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다. 출입해선 안 되는 사람이 출입하는 것은 아닌지, 사진을 찍어선 안 될 사람이 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수의 동선은 어떤지 확인하느라 한 순간도 숨 돌릴 틈 없었다. 남자 피겨 싱글 첫 번째 주자는 우리나라의 차준환 선수였다. 손님을 맞는 기분으로 모두가 차 선수가 믹스드 존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열렬결에 내가 인터뷰 마이크를 잡아주게 됐다.

긴 다리로 성큼성큼 걷는 선수를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뒤늦게 엉거주춤 선수 옆에 자리를 잡았다. 스케이트 조차 벗지 못한 채 우뚝 서 있는 선수의 얼굴 가까이 마이크를 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내 바로 옆에는 차 선수, 앞에는 차 선수만을 바라보는 수십 개의 눈과 카메라들. 선수 뜻지않게 긴장했던 터라 팔은 덜덜 떨리고 인터뷰 내용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마친 선수를 믹스드 존 끝까지 애스코트해 나란히 걸어가며 느낀 뿌듯함과 설렘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올림픽 2주 동안 나를 움직인 원동력이 됐다.

인터뷰를 도우며 만났던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팀 이벤트 경기가 끝나고 페어, 맨 경기가 진행되면서부터는 믹스드 존에서의 업무가 이숙해지기 시작했다. 익기조차 어려웠던 선수들의 이름과 얼굴이 익숙해지고 아는 기자들도 생겼다. 기자들 역시 안내하지 않아도 암전히 펜스 앞에 자리를 잡고 선수를 기다렸다. 인터뷰를 마치고 믹스드 존을 빠져나가는 선수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축하해요”하는 인사쯤은 쉽게 건네는 여유도 가지게 됐다. 특히 각 나라의 언어로 인사를 건넸을 때 한국어로 “감사합니다”하는 대답이 돌아왔을 때, 한국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있는 순간이 자랑스러웠다.

아이스아레나 Press 부서 전체 봉사자는 약 30명이었지만 믹스드 존에 배당된 인원

은 오전, 오후 팀을 합쳐서 10명 정도였다. 대부분은 대학생에 같은 나이대여서 쉽게 친해졌다. 그 중에 러시아와 미국에서 온 외국인 봉사자가 각각 한 명씩 있었는데, 타국에서 열린 올림픽 봉사에 참여한 만큼 그들의 피겨 종목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 특히, 미국에서 온 Paige는 10년 동안 피겨를 했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온 Alla는 ice dance 종목의 굉장한 팬이라고 했다. ‘피겨 무식자’였던 나를 포함해 다른 봉사자도 선수들의 연습과 인터뷰를 지켜보며 피겨 기술 하나 둘쯤은 외울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무엇보다 마음속에 선수 한 두 명은 품게 됐다. 출신 국가는 상관없었다.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가 경기 중에 넘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그 선수와 사진이라도 남기기 위해 기회를 노렸다.

근무 중엔 선수와 사진을 찍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가 끝난 후 선수의 연습 시간을 노리거나, 아니면 단지 우연히 마주치기를 기다려야 했다. AD카드 뒷면에 사인을 받기 위해 주머니 속에 항상 펜을 소지하고 다니기도 했다. 선수들이 삼엄한 경비 속에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며칠만 노력하다 보면 대개 성공을 이룬다. 연예인보다 보기 어려운 운동선수들과 사진을 찍는 잠깐 동안의 시간, 그리고 영원히 남을 한 장의 사진은 올림픽 기간 동안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중 하나였다.

봉사자에게도 예외 없는 모두의 축제 올림픽

믹스드 존에서 일한 나는 정작 경기를 직접 볼 수는 없었다. 봉사자로 참가했지만 합성소리를 그저 듣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여간 아쉬운 게 아니었다.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오전 근무였던 나는 오후에 진행되는 쇼트트랙 경기를 보기 위해 두어 차례 추가근무를 한 적이 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 있어야 했지만 어쩌면 평생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의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Press 직군이 담당해야 했던 기자들도 스타트를 알리는 종성과 함께 홀리듯 경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순간만은 감히 관중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쇼트트랙은 우리나라가 강세인 빙상 경기였고 관중 역시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다. 우리나라 선수가 역전을 시도할 때 경기장을 울리는 함성소리는 TV로 듣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이 피고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경기와 상관없이 Press 부서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1초라도 빨리 올림픽 소식을 전하려는 기자들의 업무에 밤낮이란 없었기 때문에 아이스아레나에서 근무하는 봉사자들 중 우리의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다. 매일이 바빴지만 최소 4번의 휴무일은 보장됐다. 방학에 어울리지 않는 기상시간을 유지한 탓에 첫 휴무일은 오롯이 잠을 보충하는데 썼다. 두 번째 휴무일엔 강릉 ‘올림픽 파크’에서 배지를 수집해 다녔다. 배지 수집은 올림픽 참가자들이 저마다 열을 올리는 ‘부업’이었다.

올림픽 기간 동안

배지는 곧 ‘권력’

올림픽 기간 내내 걸고 다녔던 AD카드 목걸이 줄에 달린 배지의 개수와 희귀성이 곧 ‘권력’이라는 말도 있었다. 올림픽 파크의 여리 기업 부스를 돌아다니며 하나 둘 수집하다 보면 그 말에 어느새 동의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운이 좋으면 배지 수집을 할아버지를 만나 올림픽 파크에서 구할 수 없는 희귀한 배지를 얻을 수도 있었다. 근무 중에는 미국 기자 한 명에게서 오륜기 모양의 배지를 얻기도 했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로웠고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근무가 바쁘지 않는 날에는 일찍 숙소에 돌아와 품매이트와 야식을 먹으며 TV로 경기 중계를 보는 나이 있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영광스러웠지만 항상 옆에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료 봉사자들이 없었다면 베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부터 온 기자들을 무사히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 덕분이었다.

‘피겨’는 ‘김연아’ 밖에 몰랐던 나에게 피겨 기술과 선수 정보 등을 알려준 그들 덕에 업무를 즐길 수 있었다. 믹스드 존이 질서있게 운영될 수 있게 지도를 잘 따라준 선수들, 기자들, 그리고 다른 부서 봉사자들까지. 한 달 동안 만났던 모든 이들이 나에게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려줬다. 마지막 피겨 경기 있었던 2월 23일, 우리의 공식적인 업무는 끝이 났다. 근무는 끝났지만, 이번 평창 올림픽은 ‘한국’의 올림픽으로서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